

“광주시민 모두가 1980 주인공”



강승웅 감독



‘화평반점’ 자전거를 타다 들이닥친 계엄군을 피하고 있는 삼촌(백성현 분). ‘1980’ 스틸컷.

영화 ‘1980’ 오늘 개봉...강승웅 감독 인터뷰

“촬영 전에는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가급적 5·18을 공부하고 오지 말라’는 요청을 했어요. ‘5·18 영화’를 찍는다면서 막상 리서치를 못하게 하니 황당했을 수도 있었지만, 슬픔에 함몰돼 자칫 과잉된 표현이 나올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만난 강승웅 감독은 영화 ‘1980’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냈다. 영화 ‘1980’의 시나리오는 평범한 가족이 갑작스럽게 5월 민주항쟁의 참상에 휩싸이는 내용이다. 배우들이 5월 민주항쟁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자칫 편향된 감정선을 묘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주문을 했다는 후문이다.

영화는 3월 27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영화 ‘왕의 남자’, ‘강남 1970’, ‘사도’, ‘안시성’ 등에서 미술감독 역할을 맡으며 ‘대한민국 미술영화계의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던 그가, 직접 시나리오를 창작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것.

‘1980’은 1980년 5월 17일 광주에서 평범한 중국집 ‘화평반점’ 개점을 앞두고 있던 가족들이 5월 참상에 휩싸이면서 마주한 비극을 그렸다. 폭압의 시대를 거쳐가던 한국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았다. 최근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면 없었을 비극사를 그린 작품이라는 점은 두 영화를 연장선에 놓게 한다.

영웅적인 투사 ‘이태신(정우성 분)’을 앞세웠던 서울의 봄과 달리, ‘1980’이 ‘소시민주의’를 통해 보편적인 아픔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두 작품의 차이점이다. 실제로 5·18이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주축이 됐다는 점에서 비극적 역사의 보편성, 공감대를 환기하는 강 감독의 전략에 눈길이 간다.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광주의 5월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던 일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작품이

평범한 중국집 개점 앞두고 가족들이 맞은 5·18 비극 그려 “5·18에 대한 부채의식 꼬마 상주 조천호씨가 출발점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 각인”



됐으면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중국집을 오픈한 평범한 가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름마저 당시 흔했던 철수·영희로 명명한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인터뷰 중 강 감독은 이번 작품을 크랭크인했던 2021년을 떠올렸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가 외신 기자에게 찍혀 화제가 됐던 ‘5월 꼬마 상주 조천호’ 씨를 매체에서 접한 것이 이번 작품의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작중 여덟 살 ‘철수’가 조 씨의 현신인 것. 그래서 영화 말미에는 조 씨에 대한 현장의 의미를 담아 ‘꼬마 상주’ 실제 사진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주연 배우들의 캐스팅 비화도 궁금했다. 강 감독은 “처음 스토리를 창작할 때부터 ‘삼촌’ 캐릭터로 백성현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음악방송에서 인연이 닿은 김규리 배우도 시나리오가 완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줄 만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쓴 배우들을 섭외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철수 할아버지’ 역을 맡은 강신일 배우는 현장에서 감독인 나보다도 캐릭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줬다는 점에서 감사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사의 질곡을 관통하는 작품들이 스크린을 빛낼 터지듯 장식하고 있어요. 신중한 문제이지만 작품 자체에 ‘정치성’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0’ 또한 ‘김위에 김대중’, ‘건국전쟁’, ‘서울의 봄’ 등 한국사를 다룬 작품들과 궤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을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사의 질곡을 관통하는 작품들이 스크린에 ‘불꽃’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작품에 정치성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편향’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1980’은 현재 텀블벅에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 중이다. 김규리 배우·화가 직접 그린 그림부터 감독관 각본집도 리워드도 마련돼 있다.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목표 금액 3000만원을 841% 돌파한 2억 5250만원 이상을 모금했다. 영화의 취지와 주제 의식에 공감한 후원자도 5458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5·18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적 방법으로 5월에 접근했을 뿐, 광주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광주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반추하는 영화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사진·취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바이올린 ‘화려함’을 듣다

박승원 리사이틀 다음달 1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악마와 거래한 천재’라고 불리는 파가니니 등,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음악의 악마’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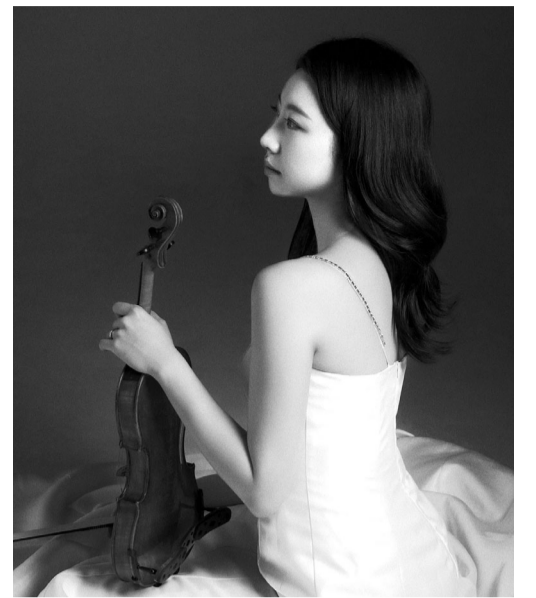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이 ‘Diabolus in Musica, 음악의 악마’라는 주제로 리사이틀을 연다.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광주 출신인 박승원은 최초로 빈 국립음대 바이올린전공 예비과, 학사, 석사과정을 Bettina Schmitt 등에게 사사했으며 한경공쿠르 대상, 한국음악협회 공쿠르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 시립교향악단 및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현재는 광주여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과 K아트 리더를 맡고 있다.

파가니니의 작품 로시니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 중 ‘모세 환상곡’을 들을 수 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렸던 그가 전 3막의 종교적 비극을 묘사한 곡이다.

생상스가 작곡한 교향시 ‘죽음의 무도 Op.40’도 올려 퍼진다. 시인 앙리 카잘리스가 동명의 프랑스 괴담을 바탕으로 쓴 시에서 영감을 받아 1872년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예술가곡으로 만들었고, 편곡을 거치며 성악 부분을 바이올린 독주로 갈음했다.

에스파냐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 파블로 데 사라스테는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콘서트 판타지 파우스트 Op.13’, 주세페 타르티니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와 ‘바이올린과 피아노



를 위한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도 레퍼토리에 있다. 피아노 협연에 김민주, 바이올린 조국영, 첼로에 오지희.

박승원은 “‘Diabolus in Musica’는 중세에 사용된 명칭으로, 그 당시 엄격히 금지됐던 음정(증 4도 또는 감5도)을 가리킨다”며 “강렬한 감5도 음정으로 시작하는 생상스 ‘죽음의 무도’, 사라사테의 ‘파우스트 판타지’ 등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를 들을 수 있는 곡들로 가득 채운 공연이다”라고 말했다.

전석 초대. /취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스타상품 개발할 수공예공방 찾아요

광주 ‘소잉’-스타벅스 텀블러백 콜라보...디자인진흥원, 내일까지 모집

광주지역 수공예공방 소잉(대표 임정하)은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콜라보상품 ‘누비 텀블러백(상품용 액막이 명대 키링·사진)’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이번 상품 출시는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디자인진흥원)의 ‘스타 공예문화상품 발굴 육성’에 따라 광주시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누비 텀블러백은 ‘액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의미의 명태를 컨셉으로 디자인했다. 전통 누비 소재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품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제주, 광주 등 전국 110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출시 첫 날 4000개가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 2023)’에서 해외 바이어로부터 관심을 받는 등 호평을 받았다.

이와 맞물려 디자인진흥원은 스타 공예문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수공예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스타상품 개발 등에 참여할 역량있는 수공예공방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 시 소재 공예공방으로,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송진희 원장은 “이번에 스타벅스 콜라보상품의 성공적인 출시는 향후 지역 공예문화상품의 발전기반을 확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타상품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글로벌 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